사헌 레포트 주제-인공지능과의 사랑?

ㄴ나는 일단 이해 가능. 그리고 나중에 실현될수도 있다는 입장..아무튼 긍정적인 입장이다

오타쿠로서 참을수없는 주제. 이건 분명 나포함 미친오타쿠들에게 엄청난 수요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1인가구가 늘어날텐데 결혼은 부담스럽지만 사랑은 하고싶은 사람들에게도 수요가 있을거같고..적절한 법적 규제를 둔다면 ㄱㅊ지않을까..

근데 하나 문제로 생각나는게..뭐 리얼돌처럼 성적대상화 논란이나 그런게 있을수도 있고..근데 이건또 ai랑 사람이랑 같냐!! 실제 사람한테만 안하면 되는거아니냐! 뭐 이런 반박들에 실제 사람한테 이어지니까 문제삼는거 아니냐! 같은 재반박도 있고..

근데 또 ai가 너무 발달해서 사람이랑 다를바가 없어진다면 ai에 대한 범죄가 사람에 대한 범죄에 준하는 급으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르지..

아예 미래의 법체계를 새로 써서 상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어차피 ai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순간부터 나의 오타쿠적 상상력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거임..관련 영화리뷰나 이런저런 콘텐츠 좀 찾아보고 상상 엄청 가미해서 해보자

이거 아니면 동성애인데 난 일단 겁나 찬성. 레전드 찬성. 찬성 화려하게 시작. 찬성의 악마 찬성의 저주 등장. 찬성 요란하게 시작. 인데.. 이건 뭔가 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까 싶음. 이것도 만약 한다면 동성애 합법화된 한국의 if물인데..

하 근데 주제가 사랑할 자유의 제한으로서의 도덕과 법이야.. 이걸갖고 뭘 해야하지

가까운 미래..인공지능과 사랑을 하는 미친 오타쿠 집단의 등장과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법률 베이스 초고교급 말싸움? 근데 결국 오타쿠 집단이 져서 평생의 사랑을 잃어버린 슬픈 오타쿠의 비극? 아니면 기적적으로 오타쿠집단이 이기는....아 모르겠다 소설도 된다하긴 했지만 내 필력이 이정도가 될지 모르겠고 하다보면 주제랑 저멀리 떨어질거 같ㄷ음

소설 베이스로 계속 망상해보면 인공지능과의 사랑이 잠시 합법이 됐었다가. 다시 불법으로 변해서 자기의 인공지능 연인을 꼭꼭 숨기고 살아가는 미친사람;; 또는 강제이별 당한 슬픈사람(서사맛잇다.)의 이야기??(사랑할자유가 줬다뺏긴거지;;일처리 레전드) (근데 이내용으로 주제 명확하게 쓸수있을지 모르겠다 애초에 아직 주제도 확실치가 않은거같고;;) 아무튼 이모든걸 어떻게 기승전결 완벽하고 주제 명확하고 내 주장 근거(심지어 합당해야함) 확실하게 이해되도록 쓰나..뭐 우리가 끔찍최악한 법때문에 비극적으로 헤어졌으나. 그러나 도덕은 우리더러 헤어지라고 하지 않았다. 이난리를 떨어야하나

창사혁 엉뚱한상상

이건 지금 갑자기 떠오른건데 맨날 망상속에 있던. 형태가 겁 나 자유자재로 변하는 이상한 반물질 비스무리한걸 꺼내야하나 싶음

예를들면 내가 이 이상한 물질로 옷을 만들면 내가 원할때 물리법칙을 다 무시하고 갑자기 여름옷이 겨울옷으로 변하고..아무튼 막 막 변하는거임 재질이랑 모양이랑이

홀인원 옷인거임 그냥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면 진짜 어처구니없이 뭐 이 옷을 빨간 가루로 양념해서 30분간 잘 끓이면 신선한 겨울옷이 되어서 나옵니다..^^ 노란 가루로 양념하면 여름옷이 되고 초록가루로 양념하면 다시 아무 옷도 아닌 그냥 물질상태..천쪼가리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딴거..

꼭 옷이 아니어도 ㄱㅊ기는 함 이 수상하고 어디서 허가도 안받았을 거 같은 화학물질로 뭐든 만들 수 있는 연금술 체험을 해보십시오..같은 느낌